

경제경영 출판가에 부는 '실패학' 바람

실패에 무감해진 한국사회에 경종 울려

일본에서는 지금 '실패를 배우자'는 붐이 일고 있다. '성공을 배우자'며 경제대국의 자신감을 과시했던 일본이 오랜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실패를 분석하고 연구하기 시작한다. 이 영향은 우리 출판계에도 미치고 있다. 최근 경제경영 분야에서 실패학 관련 책들이 속속 출간되고 있다. 출판계의 이런 흐름은 연이은 기업구조조정 실패와 공격자금 투입, 거대기업의 도산 등 IMF라는 거대한 실패의 여파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경제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거둬드는 실패로 실패에 무감각해져버린 한국사회에 이 책들은 실패를 감추지 말고 냉철하게 분석해 더 큰 실패로 이어지는 것을 막으라고 충고한다.



경제경영 출판가에 '실패학' 바람이 불고 있다. 이 흐름은 일본의 '실패에서 배우자'는 분위기가 한국 출판계에도 이어진 것. 이 책들은 개인의 실패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하고 기업의 실패를 통해 실패의 교훈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럼으로써 이 책들은 IMF여파로 실패에 무감각해진 한국사회에 실패를 철저히 분석하라고 충고한다.

실패에 대한 태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

《실패를 감추는 사람, 실패를 살리는 사람》(히타무라 요타로, 정택상, 세종서적)에서 지은이는 실패란 사회나 기업, 개인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치러야 하는 수업료라고 말한다.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려면 실패가 따르게 마련인데, 그 실패를 감추다 보면 새로운 변화에 대한 열정이 사그라질 뿐 아니라 더 큰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은이는 충고한다. 지은이는 이 책에서 실패의 학습방법, 실패에 대한 개인적·조직적 대응법 등 실질적인 적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들을 살펴보면 "실패에 대한 태도는 그 사회가 얼마나 성숙했느냐, 얼마나 민주적인가를 보여주는 척도"라는 지은이에 말에 공감하게 된다.

《이제는 실패학이다》(하가 시게루, 임승남, 연합뉴스)는 릿쿄대학 심리학과 교수인 지은이가 실패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한다. 철도사고나 산업재해 등을 예로 들면서, 실패나 사고의 경험을 숨길 것이 아니라

교훈으로 삼아 이를 폭넓게 공유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지은이는 이 책에서 실패에 관한 연구를 통해 실패한 사람들의 유형을 분류하고, 그에 따른 실패 방지 대책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제갈공명도 실패를 했을까? 제갈공명의 큰 실수는 마속을 기용한 것이었다. 공명은 재기 넘치는 마속을 "즐거 군계(軍計)를 논할" 만큼 그를 아꼈다. 그러나 유비는 죽기 전에 "마속은 중대한 임무를 맡길 만한 인물이 못된다"는 말을 남긴다. 그러나 공명은 이 말을 어기고 마속을 발탁했고, 결국 위(魏)군과의 전투에서 대패하고 말았다. 제갈공명이 겪은 실패는 '인물평가의 실패'였다. 《실패의 교훈》(니와 순페이, 이강희, 사과나무)은 중국 역사 속 인물 50명을 골라 그 실패의 사례를 소개한다. 인물평가의 실패, 인간관계의 실패, 리더십의 실패, 나아감과 물러섬의 실패 등으로 나눠 현대의 비즈니스맨들이 되새겨야 할 실패의 교훈을 제시한다.

기업 실패 분석해 실패의 교훈 전해줘

《기업이 실패하는 5가지 이유》(할랜 D. 플래트, 황선웅, 시그마인사이드컴)는 실패 방지

가 곧 성공이라고 강조한다. 지은이는 주로 기업의 재무구조에 초점을 맞춰 기업의 실패원인을 분석한다. 현금흐름주기의 비효율적 관리, 유동자산의 부실관리, 고정자산의 부실관리, 취약한 자기자본, 단기부채의 과다사용 등이 지은이가 분석하는 기업 실패의 원인. 지은이는 이 원인들을 미국 기업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조언도 들려준다.

한 기업을 예로 들어 실패의 교훈을 전해주는 책도 있다. 《천재들의 실패》(로저 로웬스타인, 이승욱, 동방미디어)는 롱텀캐피탈매니지먼트(LTCM)의 성장과 몰락이 즐거웠다. LTCM은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교수 2명, 최고의 투자 트레이더,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이사까지 가세한 최고의 투자회사였다. 이들은 실제로 1993년부터 1997년까지 400%가 넘는 수익을 기록했으며 아시아금융위기 때조차 수익을 올렸다. 그러나 LTCM은 1998년 러시아 모라토리엄 선언 때 단 한달 만에 몰락했다. 러시아 모라토리엄과 그에 따른 시장의 동요를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 책에서 독자는 LTCM 실패가 주는 교훈뿐 아니라 현대 금융이론과 투자기법, 세계 자본시장의 구조와 동향, 세계 자본시장을 좌우하는 핵심 인물들의 압투와 개성 등도 엿볼 수 있다. —김정근기자